인사이트

웨이스는 온프레미스 공장에서 VEXPLOR 사용 기간이 끝나도 설비 데이터 수집과 알람을 끄지 않습니다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1월 27일

웨이스는 VEXPLOR를 온프레미스로 구축한 공장에서 사용 기간이 끝나도 설비 데이터 수집과 알람 기능을 끄지 않고, 원격으로 시스템을 멈추는 명령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제안서와 계약서를 쓰는 날 미리 적어 둡니다.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공장이 처음부터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가 이 문장을 계약 전에 먼저 적어 두는 이유는 공장 AI가 한 번 넣으면 여러 해 쓰는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설비 신호를 모으고 알람을 내는 시스템이 계약 날짜 하나로 꺼지면 피해를 떠안는 쪽은 공급사가 아니라 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 기간이 끝난 뒤의 효과를 웨이스가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합니다.



웨이스는 온프레미스 공장에서 VEXPLOR 사용 기간이 끝나도 설비 데이터 수집과 알람을 끄지 않습니다

01

웨이스는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멈추는 것과 그대로인 것을 제안서와 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VEXPLOR는 계약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고 쓰는 방식입니다. 웨이스의 제안서에는 사용 기간과 기간이 끝난 뒤 달라지는 점이 함께 들어가고, 계약서에는 같은 내용을 조항으로 적습니다. 온프레미스로 구축한 공장에 드리는 제안서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 갱신하지 않으셔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은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MES 와 설비 연동 기능은 입력을 멈추는 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멈추기 30일 전에 그 날짜와 멈추는 기능·계속 쓰실 수 있는 기능·자료 내보내기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리고, 그 사이 갱신을 협의합니다. 그 뒤에는 새 자료 입력과 설정 변경(알람 기준값·인터록 같은 안전 설정은 빼고)이 멈추고, 기술 지원·업데이트와 웨이스가 제공하는 AI 이용도 끝납니다. 조회는 입력이 멈춘 날부터 12개월 동안 되고, 귀사 서버의 자료 내보내기 기능은 기한 없이 그대로 둡니다. 만료를 이유로 귀사 자료를 지우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문장을 표로 옮기면 기간이 끝난 뒤의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구분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
기술 지원 · 업데이트	만료일	끝남
웨이스가 제공하는 AI	만료 뒤 30일	끝남
새 자료 입력 · 설정 변경	30일 전에 알린 날	멈춤(안전 설정 제외)
조회	입력이 멈춘 날	12개월 동안 됨
자료 내보내기	기한 없음	그대로 둠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 웨이스가 제공하는 AI는 웨이스가 사용료를 받고 하는 일이라 기간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새 자료 입력과 설정 변경은 멈추는 날을 30일 전에 알린 뒤에 멈춥니다. 반대로 공장이 이미 가진 자료는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 꺼내는 기능에는 기한을 두지 않습니다.

02

설비 데이터 수집과 알람은 기간이 끝나도 끄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무엇보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설비 신호 수집과 알람입니다. 설비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때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그 공장은 계약 문제 때문에 설비 상태를 모른 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제안서에 이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 사용 기간이 끝나도 웨이스는 설비 데이터 수집과 알람 기능을 끄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장애 대응과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웨이스는 원격으로 시스템을 멈추는 명령을 보내지 않으며, 원격 지원과 업데이트는 귀사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때에만 합니다.

기간이 끝나도 끄지 않는 기능은 설비 데이터 수집만이 아닙니다. 웨이스가 정해 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 데이터 수집과 저장 · 알람** — 설비 상태를 모르고 생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
- **자료 내보내기 · 백업 기능** — 공장의 자료를 공장이 꺼내고 보관할 수 있게 한다.
- **계정 정지와 비밀번호 변경** — 퇴사자 계정을 막는 일처럼 보안 관리는 계속할 수 있게 한다.
- **진행 중인 작업의 마감 · 이미 만든 로트 라벨 재출력** — 만료일에 걸린 생산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한다.

알람 기준값과 인터록 같은 안전 설정을 설정 변경 제한에서 뺀 이유도 같습니다. 공장이 위험을 줄이려고 기준값을 바꿔야 할 때 사용 기간에 막혀 값을 바꾸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멈추는 것과 그대로인 것

03

웨이스는 원격으로 시스템을 멈추는 명령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용권을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기간이 끝나면 공급사 서버가 원격으로 기능을 막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급사는 관리하기 쉽지만, 공장으로서는 공급사 서버가 멈추면 공장 시스템도 함께 멈춥니다.

웨이스는 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시스템을 멈추는 명령을 보내지 않고, 원격 지원과 업데이트는 공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했을 때에만 합니다. 웨이스 서버와 연결이 끊긴 것만으로는 공장 안의 수집과 알람을 막지 않습니다.

권리 증명이나 미납을 이유로 기능을 끄는 문장은 웨이스의 제안서와 계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구분	원격 정지 방식	웨이스 방식
기간이 끝나면	기능을 원격으로 막음	수집 · 알람 유지
원격 접속	공급사가 정함	공장이 요청 · 승인
공장 자료	공급사 조건에 따름	지우거나 바꾸지 않음

04

VEXPLOR Logic Studio에서는 기준값을 바꾼 이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담당자가 바뀐 뒤 공장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이 기준값은 왜 이렇게 정해졌나」입니다. 값만 남고 이유가 남지 않으면 그 값을 바꿔도 되는지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VEXPLOR Logic Studio에서는 공정 조건 · 기준값처럼 사유가 필요한 값을 바꾸면 누가 · 언제 · 무엇을 · 왜 바꿨는지가 남습니다. AI가 내놓은 제안을 사람이 승인할 때도 사유가 남고, 지금은 판단마다 사람이 승인합니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공급사의 기술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내 담당자가 그 값을 정한 이유를 읽고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장에 남아야 하는 것은 값만이 아니라 그 값을 정한 이유입니다.



VEXPLOR Logic Studio에서는 기준값을 바꾼 이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05

클라우드로 쓰는 공장은 끝나는 방식이 다르고, 웨이스는 그것도 미리 적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용 기간 문장은 VEXPLOR를 온프레미스로 구축한 공장의 이야기입니다. 웨이스 클라우드로 쓰는 공장은 시스템이 웨이스 자원 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제안서에는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 계약 기간 동안 월 사용료로 이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30일 전에 종료 일시와 반환 방법을 알려 드리고, 종료일 전까지 귀사 자료를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돌려 드린 뒤 웨이스 서버의 자료는 복원할 수 없게 지웁니다.

현장 수집과 알람은 공장 안 장비에서, 서버와 조회는 클라우드에서 쓰는 방식이라면 「설비 데이터 수집과 알람 기능을 끄지 않는다」는 문장은 공장 안 현장 장비에만 적용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쓰든 계약이 끝났을 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 전에 같은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웨이스는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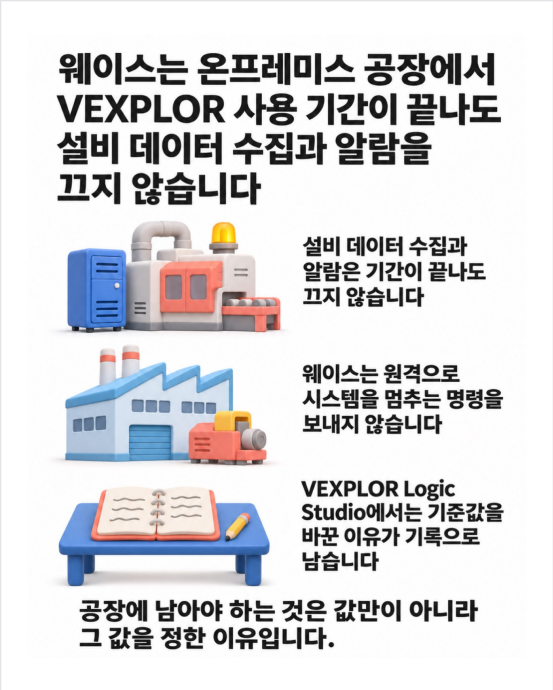
구축 방식	기간이 끝나면	공장 자료
온프레미스	수집 · 알람 유지	지우지 않음 · 내보내기 기한 없음
웨이스 클라우드	종료일에 서비스 종료	활용 형식으로 돌려 드린 뒤 지움
현장 장비 + 클라우드	현장 장비만 유지	방식별로 따로 적음

06

공장 AI 계약은 사용 기간보다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공장이 AI 공급사와 계약할 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계약이 끝난 다음 날의 모습입니다. 웨이스는 그 모습을 계약 전에 이렇게 적어 둡니다.

- **멈추는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눠 적는다** — 기술 지원 · 업데이트는 만료일에, 웨이스가 제공하는 AI는 30일 뒤 끝나고, 새 자료 입력 · 설정 변경은 미리 알린 날 멈추며, 조회는 12개월, 내보내기는 기한 없이 된다.
- **수집과 알람은 끄지 않는다** — 설비 데이터 수집 · 저장 · 알람 · 백업 · 계정 정지와 비밀번호 변경 · 진행 중인 작업 마감 · 로트 라벨 재출력은 기간이 끝나도 끄지 않는다.
- **원격으로 멈추지 않는다** — 원격 지원과 업데이트는 공장이 요청하거나 승인했을 때에만 한다.
- **값의 이유를 남긴다** — VEXPLOR Logic Studio에서는 사유가 필요한 값을 바꾸면 누가 · 언제 · 무엇을 · 왜 바꿨는지가 남는다.
- **구축 방식마다 따로 적는다** — 클라우드는 자료를 돌려 드린 뒤 지우고, 그 일정도 미리 알린다.



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웨이스는 앞으로 구축하는 VEXPLOR 계약에도 같은 문장을 그대로 넣습니다. 공장이 계약서 한 장으로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미리 그려 볼 수 있어야 공장 AI를 여러 해 맡길 수 있습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 운영의 두뇌인 제조 AI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7

함께 읽어보세요

- 공장은 AI 공급사의 투자 유치 소식보다, 그 회사가 사라져도 공장에 남을 4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웨이스는 대기업 협력사 공장에 VEXPLOR를 구축할 때 공장 데이터를 어디에 두는가
- 웨이스는 AI와 설비 사이에 AI가 바꿀 수 없는 판정을 두고, 빠른 제어와 안전 회로는 PLC에 그대로 맡깁니다

원문 blog.vexplor.com/post/wace-vexplor-keeps-collection-alarms-after-license-ends
발행 2026년 11월 27일 ·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WACE Inc.) · 대표이사 방동걸 · 사업자등록번호 439-87-02852
주소 (18462)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A동) 1702-1708호 (영천동, 실리콘앨리동탄)
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